

로동신문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기관지

제317호 [루게 제25095호] 주제 104 (2015)년 11월 13일 (금요일)

위대한 김일성 동지와

김정일 동지의 혁명사상

으로 철저히 무장하자!

당의 령도따라 내 나라, 내

조국을 더욱 부강하게 하기

위해 힘차게 일해나가자!

조선로동당 제 7차대회를 높은 정치적열의와 전례없는 로력적성과로 맞이하기 위한 오늘의 총공격전은 혁명의 노래, 투쟁의 노래를 우리 당역사에 특기할 새로운 승리를 이룩해나가는 장엄한 투쟁이다.

당장전 70년을 백두산대국의 혁명적대정사로 성대히 경축한 그 기세를 계속혁명의 포성으로 더욱 고조시켜 천만군민이 심장으로 부르는 노래 《영원히 한길을 가리라》, 《강군님 따라 싸우는 길에》, 《전사의 념원》, 《강군님은 조신의 운명》은 총진군대오의 혁명열, 투쟁열을 뽐내주고있다.

우리 당의 기초축성시기에 창작된 이 노래들이 오늘날 지대한 결연력을 가지고 시대를 격동시키고있는것은 경이하는 김정일동지의 령도따라 최후승리를 향하여 전진하는 우리 군대와 인민의 일선단결과 투쟁열사용위의 신념, 필승의 신심이 함입해 맥박치고있기때문이다.

전제 당원들과 인민군장병들, 인민들은 주체혁명위업수행의 새로운 역사적시대와 더불어 울려 퍼지는 일선단결의 노래, 승리의 노래를 높이 부르며 대고조전역에서 끊임없는 기적과 위훈을 창조해나가고 있다.

경애하는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노래는 사뭇들에게 깊은 정서와 열정을 안겨주는 생활의 길동무이고 투쟁의 띠시이며 혁명의 힘있는 무기입니다.》

혁명적인 노래는 투쟁의 대오에 높이 울리는 전군가이며 시대의 행진곡이다. 우리 혁명의 개혁과 승리적전진, 위대한 계승의 역사는 당과 수령에 대한 숭가, 찬가들을 비롯한 혁명적인 노래와 함께 일선단결의 위기가 천백배로 강화되여온 역사로 이어지고있다.

우리의 혁명적인 노래들은 위대한 투쟁, 위대한 시대의 산물이다. 일찌기 항일혁명선열들은 도탄에 빠진 민족의 운명을 구원하고 조국독립을 위하여 이 노래를 부르며 조국독립투쟁과 전후복구건설, 사회주의건설시기에 창작된 수많은 노래들은 우리 군대와 인민의

일선단결의 노래, 승리의 노래 높이 위대한 당을 따라 곧바로 힘차게 나아가자

당과 수령을 위하여, 조국을 위하여 자기의 피와 땀을 아낌없이 바쳐 싸우게 하는에서 열적의 포성, 전격의 나팔소리로 높이 울려 퍼졌다. 위대한 당을 따라 비가 오나 눈이 오나 혁명의 한길을 끝까지 가려는 천만군민의 철석의 의지를 반영한 혁명적인 노래들은 당과 수령을 보위하는 위대한 사상적무기가 되고 인민대중을 영웅적위용창조주에 이끄는 투쟁의 주체로 되고있다. 바로 여기에 혁명적인 노래의 커다란 사상 예술적감화력이 있다.

조선로동당장전 70년경축 공훈 국가합창단과 모란봉악단의 합동 공연, 1만명 대공연 《위대한 당, 찬란한 조선》에서 울려나온 일선단결의 노래, 승리의 노래들은 오늘 당 제 7차대회를 전례없는 혁신적성과로 맞이하기 위하여 총진군대오인 천만군민을 세차게 격동시키고있다. 위대한 당의 령도따라 백두산대국의 새로운 승리를 이룩해나갈 우리 군대와 인민의 신념은 확고부동하다. 그 어느 나라, 그 어느 당의 역사에도 조선혁명과 같이 노래로 시작 한 혁명, 노래를 위대한 투쟁과 변혁의 강력한 힘으로 전환시킨 혁명은 없다.

자기 수령을 절대적으로 믿고 따르는 충실성을 신장에 쏠아박은 결연한 혁명가, 혁명승리에 대한 확고한 믿음은 철의 진리로 새긴 사상과 신념의 강자들만이 혁명의 노래를 높이 부르며 당을 따라 영원히 한길을 갈수 있다. 주체혁명위업의 새로운 역사적시대에 우렁차게 울려 퍼지는 《영원히 한길을 가리라》, 《강군님 따라 싸우는 길에》, 《전사의 념원》, 《강군님은 조신의 운명》은 경애하는 원수님을 정치사상적으로, 목숨으로 옹호보위하고 그 어떤 천지공과가 당적외도 원수님의 령도를 충직하게 받들어나가는 우리 군대와 인민의 충정의 분출이다. 혁명의 노래, 투쟁

의 노래를 높이 부르며 권속공격, 계속전진, 계속혁신의 불바람을 세차게 일으켜나가는 천만군민이 있기에 우리 조국의 정치사상적위력은 더욱 분배의것으로 다져지고 있다. 우리 군대와 인민은 앞으로도 일선단결의 노래를 높이 부르며 당을 따라 비가 오나 눈이 오나 혁명의 한길을 끝까지 가려는 천만군민의 철석의 의지를 반영한 혁명적인 노래들은 부당치는 같이하려는 천만군민의 일선단결의 주체이다.

총진군대오에 높이 울려 퍼지고 있는 혁명적인 노래들은 경애하는 원수님과 끝까지 운명도 미래도 같이하려는 천만군민의 일선단결의 주체이다.

자기 령도자와 뜻과 정, 생사를 같이하려는 군대와 인민의 티없이 맑고 깨끗한 총정성은 우리의 혁명적인 노래의 사상정서적핵이고 제일 주제이다.

당의 기초축성시기 우리 일군들과 당원들은 찬란한 혁명적대정사로 새겨진 노래, 승리의 노래를 따라 당 제 7차대회를 전례없는 혁신적성과로 맞이하기 위하여 총진군대오인 천만군민을 세차게 격동시키고있다. 위대한 당의 령도따라 백두산대국의 새로운 승리를 이룩해나갈 우리 군대와 인민의 신념은 확고부동하다. 그 어느 나라, 그 어느 당의 역사에도 조선혁명과 같이 노래로 시작 한 혁명, 노래를 위대한 투쟁과 변혁의 강력한 힘으로 전환시킨 혁명은 없다.

자기 수령을 절대적으로 믿고 따르는 충실성을 신장에 쏠아박은 결연한 혁명가, 혁명승리에 대한 확고한 믿음은 철의 진리로 새긴 사상과 신념의 강자들만이 혁명의 노래를 높이 부르며 당을 따라 영원히 한길을 갈수 있다. 주체혁명위업의 새로운 역사적시대에 우렁차게 울려 퍼지는 《영원히 한길을 가리라》, 《강군님 따라 싸우는 길에》, 《전사의 념원》, 《강군님은 조신의 운명》은 경애하는 원수님을 정치사상적으로, 목숨으로 옹호보위하고 그 어떤 천지공과가 당적외도 원수님의 령도를 충직하게 받들어나가는 우리 군대와 인민의 충정의 분출이다. 혁명의 노래, 투쟁

의 노래를 높이 부르며 권속공격, 계속전진, 계속혁신의 불바람을 세차게 일으켜나가는 천만군민이 있기에 우리 조국의 정치사상적위력은 더욱 분배의것으로 다져지고 있다. 우리 군대와 인민은 앞으로도 일선단결의 노래를 높이 부르며 당을 따라 비가 오나 눈이 오나 혁명의 한길을 끝까지 가려는 천만군민의 철석의 의지를 반영한 혁명적인 노래들은 부당치는 같이하려는 천만군민의 일선단결의 주체이다.

자기 령도자와 뜻과 정, 생사를 같이하려는 군대와 인민의 티없이 맑고 깨끗한 총정성은 우리의 혁명적인 노래의 사상정서적핵이고 제일 주제이다.

당의 기초축성시기 우리 일군들과 당원들은 찬란한 혁명적대정사로 새겨진 노래, 승리의 노래를 따라 당 제 7차대회를 전례없는 혁신적성과로 맞이하기 위하여 총진군대오인 천만군민을 세차게 격동시키고있다. 위대한 당의 령도따라 백두산대국의 새로운 승리를 이룩해나갈 우리 군대와 인민의 신념은 확고부동하다. 그 어느 나라, 그 어느 당의 역사에도 조선혁명과 같이 노래로 시작 한 혁명, 노래를 위대한 투쟁과 변혁의 강력한 힘으로 전환시킨 혁명은 없다.

자기 수령을 절대적으로 믿고 따르는 충실성을 신장에 쏠아박은 결연한 혁명가, 혁명승리에 대한 확고한 믿음은 철의 진리로 새긴 사상과 신념의 강자들만이 혁명의 노래를 높이 부르며 당을 따라 영원히 한길을 갈수 있다. 주체혁명위업의 새로운 역사적시대에 우렁차게 울려 퍼지는 《영원히 한길을 가리라》, 《강군님 따라 싸우는 길에》, 《전사의 념원》, 《강군님은 조신의 운명》은 경애하는 원수님을 정치사상적으로, 목숨으로 옹호보위하고 그 어떤 천지공과가 당적외도 원수님의 령도를 충직하게 받들어나가는 우리 군대와 인민의 충정의 분출이다. 혁명의 노래, 투쟁

의 노래를 높이 부르며 권속공격, 계속전진, 계속혁신의 불바람을 세차게 일으켜나가는 천만군민이 있기에 우리 조국의 정치사상적위력은 더욱 분배의것으로 다져지고 있다. 우리 군대와 인민은 앞으로도 일선단결의 노래를 높이 부르며 당을 따라 비가 오나 눈이 오나 혁명의 한길을 끝까지 가려는 천만군민의 철석의 의지를 반영한 혁명적인 노래들은 부당치는 같이하려는 천만군민의 일선단결의 주체이다.

자기 령도자와 뜻과 정, 생사를 같이하려는 군대와 인민의 티없이 맑고 깨끗한 총정성은 우리의 혁명적인 노래의 사상정서적핵이고 제일 주제이다.

당의 기초축성시기 우리 일군들과 당원들은 찬란한 혁명적대정사로 새겨진 노래, 승리의 노래를 따라 당 제 7차대회를 전례없는 혁신적성과로 맞이하기 위하여 총진군대오인 천만군민을 세차게 격동시키고있다. 위대한 당의 령도따라 백두산대국의 새로운 승리를 이룩해나갈 우리 군대와 인민의 신념은 확고부동하다. 그 어느 나라, 그 어느 당의 역사에도 조선혁명과 같이 노래로 시작 한 혁명, 노래를 위대한 투쟁과 변혁의 강력한 힘으로 전환시킨 혁명은 없다.

자기 수령을 절대적으로 믿고 따르는 충실성을 신장에 쏠아박은 결연한 혁명가, 혁명승리에 대한 확고한 믿음은 철의 진리로 새긴 사상과 신념의 강자들만이 혁명의 노래를 높이 부르며 당을 따라 영원히 한길을 갈수 있다. 주체혁명위업의 새로운 역사적시대에 우렁차게 울려 퍼지는 《영원히 한길을 가리라》, 《강군님 따라 싸우는 길에》, 《전사의 념원》, 《강군님은 조신의 운명》은 경애하는 원수님을 정치사상적으로, 목숨으로 옹호보위하고 그 어떤 천지공과가 당적외도 원수님의 령도를 충직하게 받들어나가는 우리 군대와 인민의 충정의 분출이다. 혁명의 노래, 투쟁

의 노래를 높이 부르며 권속공격, 계속전진, 계속혁신의 불바람을 세차게 일으켜나가는 천만군민이 있기에 우리 조국의 정치사상적위력은 더욱 분배의것으로 다져지고 있다. 우리 군대와 인민은 앞으로도 일선단결의 노래를 높이 부르며 당을 따라 비가 오나 눈이 오나 혁명의 한길을 끝까지 가려는 천만군민의 철석의 의지를 반영한 혁명적인 노래들은 부당치는 같이하려는 천만군민의 일선단결의 주체이다.

자기 령도자와 뜻과 정, 생사를 같이하려는 군대와 인민의 티없이 맑고 깨끗한 총정성은 우리의 혁명적인 노래의 사상정서적핵이고 제일 주제이다.

당의 기초축성시기 우리 일군들과 당원들은 찬란한 혁명적대정사로 새겨진 노래, 승리의 노래를 따라 당 제 7차대회를 전례없는 혁신적성과로 맞이하기 위하여 총진군대오인 천만군민을 세차게 격동시키고있다. 위대한 당의 령도따라 백두산대국의 새로운 승리를 이룩해나갈 우리 군대와 인민의 신념은 확고부동하다. 그 어느 나라, 그 어느 당의 역사에도 조선혁명과 같이 노래로 시작 한 혁명, 노래를 위대한 투쟁과 변혁의 강력한 힘으로 전환시킨 혁명은 없다.

자기 수령을 절대적으로 믿고 따르는 충실성을 신장에 쏠아박은 결연한 혁명가, 혁명승리에 대한 확고한 믿음은 철의 진리로 새긴 사상과 신념의 강자들만이 혁명의 노래를 높이 부르며 당을 따라 영원히 한길을 갈수 있다. 주체혁명위업의 새로운 역사적시대에 우렁차게 울려 퍼지는 《영원히 한길을 가리라》, 《강군님 따라 싸우는 길에》, 《전사의 념원》, 《강군님은 조신의 운명》은 경애하는 원수님을 정치사상적으로, 목숨으로 옹호보위하고 그 어떤 천지공과가 당적외도 원수님의 령도를 충직하게 받들어나가는 우리 군대와 인민의 충정의 분출이다. 혁명의 노래, 투쟁

들과 근로자들은 무에서 유를 창조하고 불가능을 가능으로 전환시키며 당의 사상관철전, 당정책위행전의 불길은 세차게 지져올려 인민군대의 창조분배와 투쟁기풍을 적극 따라배워야 한다. 강성국가건설의 모든 전구마다에서 세상이 없는 군인대단결의 위력을 더 높이 떨쳐야 한다.

투쟁하기 좋아하고 진취성이 강한 청년들이 들끓어야 온 나라가 들끓고 청년들의 발걸음이 빨라야 부강 조국의 미래가 앞당겨지게 된다. 모든 청년들은 천지의 맑은 물처럼 순결하고 백두의 이깔처럼 강직한 신군사대의 청년들처럼, 청년분자를 창조한 백두청춘들의 모범을 따라배워 최후승리를 위한 전진민족총진군에 새로운 박차를 가해야 한다. 우리의 사회주의를 허물어 버리는 적들의 책동을 짓부시는 무서운 최성인 청년중시사상관세의 환호소리가 온 강산을 진감시키도록 하여야 한다.

당조직들은 혁명적인 노래들을 통한 사상교양사업을 진공적으로 벌려 나가야 한다.

각급 당조직들은 노래는 혁명투쟁과 대중교양의 위대한 수단이며 제국주의의 대결전선에서 적의 심장을 꿰뚫을 수 있는 열적의 총탄과 같다. 이것을 항상 명심하고 모든 초소와 일터에서 대중의 심장에 불을 다는 노래가 끊임없이 울려 퍼지게 하여야 한다. 백두의 혁명정신, 백두의 칼바람정신이 맥박치고 혁명열과 투쟁열, 창조와 건설의 열정을 분출시키는 노래들을 대중중에 널리 보급하기 위한 사업을 힘있게 벌려나가야 한다.

문화예술부문에서는 혁명적인 노래들을 더 많이 내놓기 위한 창작의 열정을 세차게 일으키며 혁명적의 요구에 맞게 예술선진, 예술선봉의 전수성과 소조성을 끊임없이 높여나가야 한다.

혁명적인 노래들이 백두의 전군로 울려나가는것은 우리 당의 위대한 투쟁정신이다.

모두다 일선단결의 노래, 승리의 노래를 더 높이, 더 힘차게 부르며 당 제 7차대회를 우리 당역사에 특기할 혁명의 최성정기로 빛내이기 위하여 계속혁신, 계속전진해나가는 투쟁과 위훈의 생이다. 일군들과 당원

경애하는 김정일 동지께서

당과 수령에 대한 충실성을 지니고 혁명파업수행에 헌신한 일군들과 근로자들에게 감사를 보내시였다

우리 당과 인민의 최고령도자이신 경애하는 김정일동지께서는 당과 수령에 대한 충실성을 지니고 혁명파업수행에 헌신한 일군들과 근로자들에게 감사를 보내시였다.

백두산철수위원들의 청년수상사업과 업적을 빛내여갈 일선단결 추진경쟁수행로수행 최우선은 청년운동사적관전선에서 야간지형전돌격대활동을 적극 벌리면서 여러차례에 걸쳐 많은 자재와 후방물자들을 지원하였다.

국가과학원 잔디연구분원 기술준비원 리준은 청년운동사적관전선의 잔디밭조성을 위한 기술문제해결을 원천히 풀기 위해서 잔디재배기술을 비롯한 잔디밭과 잔디배양추진에 필요한 농약들을 보내주었다.

조선청년운동사가 집대성될 시작점인

설에 청춘의 열정과 순결한 맘을 바쳐 갈 열의에 정중은하수유식적 로동자 강행성도 건설장에 달려나가 힘있는 후방사업으로 돌격대원들의 투쟁을 고무하였다.

평성시 차차동초급녀맹위회 부부위원장 박순은, 순천지구청년전방민합기업소 새마을동맹초급단체위원장 오영금, 파산군 읍초급녀맹위회 부부위원장 최준경, 해주시 행정동맹초급단체위원장 이상애, 평흥군 읍초급단체위원장 서애화, 온천군 원음로동자구초급녀맹위회 부부위원장 차경순은 오랜 기간 념명사업에 적극 헌신하고 있다.

그들은 동맹원들에 대한 조직사상교양사업을 강화하여 그들을 당의 투리에 든든히 묶어세우고 수령의 유훈관철전, 당정책

을위행으로 힘있게 불어일으킴으로써 모범적인 초급일군들로 대중의 존경을 받고 있다.

조선중앙방송위원회 실장 정성철은 당 사상선전의 전초병이라는 자각을 안고 취재정밀활동을 활발히 벌려 인민교육의 의의가 큰 텔레비전방송수행진보들을 훌륭히 창작완성하여 당원들과 근로자들을 백두의 혁명정신, 백두의 칼바람정신으로 무장시키며 부강조국건설에 고구루추진하는데 기여하였다.

경애하는 김정일동지께서 보내신 감사를 크나큰 감격으로 받아안은 일군들과 근로자들은 백두산철수위원들을 천세만세 높이 우러러모시며 조국의 강성번영과 집단을 위한 일에 더욱 헌신할 열의에 넘쳐 있다.

본사기자

백두산절세위인들의 현지도사적비

재령 광산에 건립

백두산절세위인들의 현지도사적비(경이 빛나라 백두산절세위인들의 불멸의 영도업적비)가 재령광산에 건립되었다.

광산에는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 정력적인 령도자 판산의 나라의 주체적기풍을 쇄동하며 만드는 대우주의 철광석생산기지로 전진시켜주신 불멸의 업적이 뜨겁게 깃들여 있다.

광산의 일군들과 종업원들은 조국의 부강번영을 위한 만년제투쟁을 마다하지 않는 혁명적의 령도업적을 후손들에게 길이 빛내일 충정의 일념으로 현지도사적비를 건립하였다.

준공식이 11일에 진행되었다.

관계부문, 재령광산의 일군들과 종업원들이 참가한 준공식에

서는 박영호 황해남도당위원회 책임비서가 준공사를 하였다.

연설자는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새 조국건설의 첫 시가위 판산을 찾으신고 철광석생산량을 높여나간다고 언급하였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판산을 여러차례 현지지도하시면서 불타는 애국의 일념으로 쇄동하신으로 나라의 경제발전에 크게 기여하고있는 광부들에게 크나큰 은정을 안겨주시고 판산이 나아가길 앞길을 한히 밝혀주시었다고 그는 말하였다.

그는 판산이 령도업적단위답게 그 면모가 일신되고 종업원들의 정성력이 최대로 분출되어 생산과 건설의 모든 면에서 혁신적성과들이 이룩될수 있는것은 위대한 수령님들의 불멸의 유산의 로고와 당의 혁명적의 령도의

결과이라고 강조하였다.

그는 판산의 전체 종업원들이 위대한 수령님들의 유훈과 경애하는 김정일원수님의 의도를 높이 받들고 쇄동생산에서 일대 전환을 일으키시는데 대하여 언급하였다.

판산의 당조직들과 근로단체 조직들에서는 5대교양을 비롯 모든 사상교양사업을 최고로 모든 종업원들을 참다운 김일성-김정일주의자로 튼튼히 준비시키시게 하도록 할것이라고 그는 말하였다.

그는 탐사를 앞세워 예비광장을 더 많이 확보하고 재굴 및 운반, 사발설비들의 현대화를 적극 실현하여 판산의 생산능력을 최대한 높여나갈데 대하여 언급하였다.

건립준비 및 정비보수계획을 철저히 세워 설비들에 만가동, 만부하를 보장함으로써 다량광, 다량처리할데 대한 당정책

을 철저히 관철해나갈데 대하여 그는 강조하였다.

그는 판산의 모든 종업원들과 일군들이 김일성동지님의 불멸의 영도업적을 높이 받들고 판산지구의 수립화, 원형화를 다그치며 생산문화, 생활문화를 확립하기 위한 사업을 힘있게 벌려 금산지구를 사회주의선봉으로 보다 훌륭히 꾸려나가야 할것이라고 말했다.

보고자는 백두산절세위인들의 불멸의 영도업적을 더욱 빛내이며 당의 명도를 충성다해 받들어갈 마음과 애국의 열정을 더욱 높여나갈데 대하여 언급하였다.

준공식이 끝난 다음 참가자들은 현지도사적비에 대한 해설을 듣고 비를 돌아보았다.

【조선중앙통신】

증송의 기적소리 더 높이 울리며

철도운수부에서 중요물동수송 110%로 장성

철도운수부문의 일군들과 수송전사들이 조선로동당 제 7차대회에 자랑찬 로력적성들을 마련할 불타는 일념을 안고 증송의 기적소리를 더욱 높이 울려가고있다. 종합된 자료에 의하면 철도성적으로 10월 화물수송계획이 100.4%로 넘쳐 수행되었으며 11월에 들어와 전월보다 비하여 중요물동수송이 하루평균 110%로 장성하는 자랑찬 성과가 이룩되고있다.

경애하는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우리의 기술, 우리의 자원에 의거하여 금속, 화학공업을 비롯한 기간공업부문을 발전시키고 철도운수를 쪼개세워 모든 경제부문들이 활기를 띠고 원만하게 전진하도록 하여야 합니다.》

지난 7월 김일성동지기관차편합기업소를 찾으신이 철도현대의 불길을 지져주신데 이어 뜻깊은 10월에도 또다시 찾아오시어 안겨주시는 경애하는 원수님의 크나큰 사랑과 믿음은 철도운수부문의 일군들과 수송전사들이 증송투쟁의 불길을 더욱 세차게 지져올리게 한 원천으로 되고있다.

화차수리에 필요한 중요부속품보장에 힘을 넣어 대중의 양양된 열의가 높은 증송성으로 이어지도록 하고있다. 영광의 5월을 향하여 증송의 기적소리 높이 울려갈 불타는 열의로 펼쳐나선 서정양기관차와 북방기관차, 평양조차장기화차대들 비롯한 여러 단위의 수송전사들은 유리한 조건을 주동적으로 마련하면서 불꽃튀는 수리전투로 기관차, 화차들을 높은 질적수준에서 수리정비하여 실패를 높이고 제기되는 물동물들을 제때에 실어나르기 위한 줄기찬 투쟁을 벌리고있다.

함흥철도국의 일군들과 수송전사들도 수송이자 생산이라는 높은 자각을 안고 지난 10월 년간 화물수송계획을 앞당겨 수행한 기세로 계속혁신, 계속전진하고있다. 국에서는 화차머뭇수리상태와 점검기정형 등을 구체적으로 장악하고 그에 따르는 철차운행계획을 면밀히 세운데 기초하여 차출과 차우리를 신속하고 집중수송물자들을 제때에 실어나르도록 매일

철도운수부문의 일군들과 수송전사들이 새로운 결의와 신념에 넘쳐 앞장에서 정공같이 내달리고있다. 오늘의 총진군에서 혁명의 지휘정신으로서 자신들이 지닌 임무를 충성스럽게 수행한 국의 일군들은 기관차와 화차들의 맞물림조작과 지휘를 보다 짜임새 있게 진행하는 한편, 제 동구두와 차축을 비롯하여 기관차,

발거진 수송계획을 어김없이 수행하고있다.

증송투쟁은 개천철도국에서도 활발히 벌어지고있다. 조선로동당 제 7차대회소집과 관련한 보도에 접한 즉시 중요물동수송이 진행되는 현장들에 달려나간 국의 일군들은 실패를 주체적으로 로해하고 결연 문제를 앞질러가며 풀이하면서 수송조직과 화차 수송전사들을 헌신하여 중요물동물 생산적양양의 불길이 계속되게 타오르는 인민경제 여러 부문에 제때에 도착하도록 하고있다. 국어에 여러 역과 개회차대들에서는 중요물동물 실은 열차가 도착하면 제때에 검사하고 수리대행을 세워 역에서의 머무름 시간을 훨씬 줄이고있다.

청진철도국과 라진철도국의 일군들과 수송전사들도 지역경쟁, 간고분투의 투쟁기풍을 높이 발휘하며 중요대상들에 더 많은 물동을 실어보내기 위한 투쟁에 박차를 가하고있다.

본사기자 정 경 철



경애하는 원수님의 신념사에 제시된 전투적과업을 철저히 관철하여 올해전투를 빛나게 결속하기 위한 생산투쟁을 힘있게 벌리고있다. -라남관광기계연합기업소에서- 본사기자 김 광 령 찍음

당조직들의 역할을 더욱 높여 뜻깊은 올해전투를 빛나게 결속하자

기적을 안아온 혁명적인 투쟁기풍

통성기계연합기업소 당위원회 사업을 놓고

전투목표는 당에 다진 맹세이다. 그 맹세를 어떻게 지켜야 하는가.

높이 세운 올해전투목표수행에 대중을 불러일으켜 기적적인 성과를 이룩한 통성기계연합기업소 당위원회의 사업경험이 그에 대답을 준다.

경에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었다.

《당조직들은 해당 단위의 정치적모순이 그 기본인 무는 일군들과 당원들과 근로자들을 조직동원하여 당의 로선과 정책을 무조건 철저히 관철하는것입니다.》

련합기업소가 세운 올해전투목표는 이전시기와는 대비도 할 수 없을만큼 높았다. 기공공식을 따르던 거의 4년은 걸려야 할 대상설비생산은 6개월동안에, 당창건 70돐으로 연간 계획 완수...

참으로 방대한 목표였다.

당위원회는 전투목표수행에 대한 일군들과 종업원들의 관심과 태도를 바로세워주는 사업부터 시작하였다.

당위원회는 통성기계연합기업소의 전투목표수행에 대한 관심과 태도를 바로세워주는 사업부터 시작하였다.

당위원회는 통성기계연합기업소의 전투목표수행에 대한 관심과 태도를 바로세워주는 사업부터 시작하였다.

경대식배낭을 메고 군중속으로 들어갔다. 아침마다 경제선동을 힘있게 진행하는 한편 기공예술행사, 노동대회를 최대한 전투현장에 집중시켰다. 호소성이 강하고 전투적기풍이 넘치는 경제선동은 종업원들로 하여금 자기자신과 단위가 맡은 전투과제를 무조건 수행해야겠다는 각오를 가지게 하였다.

한창 전투가 진행되던 어느날 원래 반으로 계획되었던 청진기계단식발전소 대상설비생산을 4월말까지 끝내는데 대한 과업이 제기되었다.

건립회의가 진행되었다.

연합기업소가 세운 올해전투목표는 이전시기와는 대비도 할 수 없을만큼 높았다. 기공공식을 따르던 거의 4년은 걸려야 할 대상설비생산은 6개월동안에, 당창건 70돐으로 연간 계획 완수...

조상기용압축기생선의 큰 몫을 맡은 2세번직장에서 진행된 당위원회 조직부 일군의 정치사업을 실행해보자.

조상기용압축기생선에서 제일 난문제는 공기압축기생선구부림작업에 필요한 어느 한 일군의 해결방도가 마련되었는지였다. 종업원들속에 들어간 당 일군은 청진기계단식발전소 대상설비생산을 당이 정해준 기일에 끝내는가 못 끝내는가 하는 열쇠가 바로 동우들에게 달려있다고 고무도 해주고 밤을 새워가며 그들과 고락을 함께 하였다. 그리하여 대중스스로가 방도를 찾아 새로운 방식으로 공기압축기생선을 해낼수 있게 하여 조상기용압축기생선의 돌파구를 열어놓았다.

당위원회는 일군들모두가 들끓는 전투장 한복판에 참모를 정하고 헌신하는 육탄용사, 야전형의 지휘성원이 되도록 하는데 특별한 힘을 넣었다.

이렇게 힘은 모으기마디에 어깨를 들이밀고 돌파구를 여는데서 당위원회 일군들이 보여준 모범을 보았다.

지난 7월 출장갔다는 길로 지열설비생산기전진설장을 찾은 당책임일군은 당창건 70돐까지 끝내기로 된 건축공사가 세멘트부족때문에 일정대로 추진되지 못하고있는 실태를 알게

되었다. 그는 지체없이 세멘트공장으로 떠났다.

성있는 후방물자를 싣고 수백리를 달려와 현장정치사업을 하는 당일군의 모습은 그곳 로동자들을 감동시켰다. 당책임일군은 그곳 로동자들이 증산해낸 수백의 세멘트를 화차에 실어 오기 위해 전후도 밤을 새워가며 지휘하여 공사가 중단없이 진행되도록 하였다.

지열설비생산기전진공사를 당직분공으로 맡은 당위원회 비서 전병철동무 역시 세라카트벽돌을 해결해오느라 건축공사의 돌파구를 열어놓았다.

일군들이 높은 혁명성을 발휘한 실례는 많다. 4기제작장에 나간 당일군이 비이트가 부족하여 복사화력발전연합기업소 대상설비생산일이 지연되고있는 문제를 로해하고 해당 일군들과의 편지말에 즉시 해결해준 사실, 선진주철공장을 담당한 조직부일군이 혼사망과 자식신벌이 문제를 제때에 대해준것으로 전덕과 남흥에 보내준 중요설비의 소재생산을 확고히 앞세울수 있게 한 사실, 지난 8월 황해제철에서 조상기용압축기생선기전진설장에 필요한 목형제작작업들을

벌리고있는 목형제작 종업원들속에 들어간 당책임일군이 현장정치사업을 하면서 후방사업도 통이 크게 하여 한달은 걸려야 하던 압하복목형제작을 6일 동안에 끝내도록 한 사실...

대중의 심장속에 싹의 높이가 당성의 높이며 전투실적은 당성을 검증하는 시금석이라는 확고한 관념을 심어주고 일군들이 야전형의 지휘성원이 되어 돌파구를 열어제끼면 결과는 좋았다. 청진기계단식발전소 대상설비생산은 4월말까지 성과적으로 끝났으며 련합기업소는 10월 5일까지 연간계획을 완수하였다. 위대한 장군님의 유훈인 지열설비생산기전진공사가도 당창건 70돐까지 기본적으로 끝났다. 보다 큰 성과는 이 과정에 일군들과 종업원들이 높은 당성의 소유자들로 자리난 것이다.

사생활간의 각오를 가질 때, 혁명의 지휘성원인 일군들이 육탄용사, 야전형의 일군이 되어 대중의 앞장에 돌파구를 열어제끼며 당창건에 대한 맹세를 빛나게 실천했다.

우리 당이 영웅적인 기업소, 당의 미더운 전위투사라는 크나큰 믿음을 안겨준 통성기계연합기업소의 올해전투성과는 이것을 확증해주었다.

본사기자 김 향 연

성과의 비결 - 일관성

덕성관광 초급당위원회는 당정책관철에서 일관성문제에 중요하게 제기하였다.

하지만 이것은 말처럼 쉬운것이 아니다. 좋은 방법론이 있어야 한다.

그러면 초급당위원회가 어떤 방법으로 이 사업을 전개해나갔는가.

위대한 명도자 김정일 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당일군들은 무슨 일을 하나 시작하면 어떤 어려운 조건에 부닥쳐도 중도반단하지 말고 끝장을 보고야마는 실천력이 강한 일군이 되어야 합니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친언사에서 제시하신 과업을 관철하기 위한 사업을 단행한 사업으로 전향시켜나갔다.

3월 어느날이었다.

초급당위원회의 지도밑에 온수중대, 자체과를 비롯한 업무부서의 일군들이 모인 회의가 열렸다. 회의는 당정책관철에서 오분일도는 금물이다. 끝없는 불 꺼지지 일관성있게 내밀어야 좋은 결실을 볼수 있다. 이런 면에서 덕성관광 초급당위원회 일군들의 사업 경향을 점검하기 위한 사업에 대중의 정신향을 발동하는 방법으로 돌아나갔다.

이 사실에서 초급당일군은 자

사업에서

경쟁 주성일동무를 비롯한 일군들의 치밀한 조직사업과 힘있는 정치사업에 의해 한우일이라는 짧은 기간에 15대의 판차가 수리되고 경의 끝진공, 재탄공들에게 막장소공구가 공급되었다. 그러자 대중의 기세는 높아졌다. 이에 맞게 지배인 김병일, 초급당위원회 부비서들인 최광철, 서산철동무들은 교배를 달고 내려가 재탄준비, 끝진소대간의 사회주의증산경쟁이 힘있게 벌어지도록 조직과 지휘를 맡아나갔다. 대중의 정신향이 최대로 발휘되는 가운데 6개월후에는 260수준관경사구역에 새 판차가 마련되었다. 그후 3명의 석탄생산실적이 하루가 다르게 높아졌다.

초급당위원회는 이 경험을 살려 모든 경쟁에서 끝진을 확고히 할수있도록 대중의 정신향을 일관성있게 끌어올리고가도록 조직정치사업을 더욱 짜고쳤다.

결과 오분일도식으로 일관한 사업이 일관성있게, 완강하게 밀고나가는 전위적인 사업기풍으로 나타났다. 석탄생산에서 오분일도라는 결실은 매우 중요한 교훈을 시사해준다.

본사기자 손 영 희

돌파구는 일군들의 몫

자 완공할수 있는 전망이 열리게 되었다.

이렇듯 신년사업관철을 위한 투쟁에서 이룩된 이 광산의 자랑한 성과들마다에는 일군들의 실천력을 최대로 높여 전진의 돌파구를 힘있게 열어 온 이 초급당위원회의 전위적인 사업기풍이 숨어있다.

돌파구는 일군들의 몫! 당조직들이 이런 투철한 관념과 믿음을 가지고 일군들을 적극 떠밀어준다면 당 창 70주년대회를 맞으며 모든 단위에서 비약과 혁신의 불길이 더욱 세차게 타오르게 될것이다.

본사기자 권 정 수

당세포강화에 선차적힘을 넣어

교육도시인쇄공장 초급당위원회 일군들

올해전투에서 커다란 성과를 거두고있는 교육도시인쇄공장 초급당위원회 사업에서 주목되는것은 당세포를 강화하는데 선차적인 힘을 넣고있는 것이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었다.

《경제강국건설과 인민생활에서 획기적인 전진을 가져오려면 각급 당조직들, 특히 당세포들이 당정책관철의 결사대, 척후대로서의 역할을 훌륭히 수행하여야 합니다.》

공장에서 경애하는 원수님의 신년사를 받아인고 세운 전투목표는 방대하였다. 필연 높아진 교과서생산목표와 생산건물의 현대화공사...

지난 시기같으면 업무도 내지 못할 복잡잡다한 일감들이었다.

교과서생산성과를 확대하면서 동시에 생산건물의 현대화공사를 내민다는것은 결코 말처럼 쉬운 일이 아니었다.

바로 이러한 때 이 초급당위원회 일군들은 어떻게 하였는가.

초급당비서 팀원들은 방대한 올해계획을 수행하기 위한 중요한 열쇠를 당원들의 선봉적

역할을 높여나간데서 찾고 당세포를 강화하는데 힘을 집중하고 있었다.

교과서생산의 첫 공정을 맡은 평면직장 기계2작업반 당세포가 선봉적역할을 하도록 할수있도록 이 당세포적인 실행이다.

이 단위를 맡고 내려간 초급당일군은 세로사업에서 나타난 현상들을 바로잡아주면서 당세포로서 자기의 책임과 역할을 다하도록 이끌어주는 한편 집단 문제를 풀어주기 위한 사업도 적극적으로 밀고나갔다.

이렇게 되니 세로당원들이 신년사업관철에 한사람같이 떨쳐나서게 되어 생산능력을 1.5배까지 올리게 되었다.

초급당일군은 제책 1, 2직장 종합작업반 당세포들의 사업도 동시에 밀고나갔다. 제책 2직장 부문당비서 임성철동무는 종합작업반 당세포의 전투력을 비할수 높여나가는 과정에 지난 6월 사정되었던 4대의 종합기기를 전부 원상복구함으로써 높아진 교과서생산계획수행에 적극 이바지하였다.

초급당위원회는 생산건물의 현대화공사를 힘있게 추진시키

는 과정 역시 당세포의 전투력을 높여나가는 과정으로 되도록 하였다.

초급당일군은 참모부조직의 직속세부들을 발동하여 거기에 소속된 공장일군들이 생산건물의 현대화사업에서 기수의 역할을 훌륭히 수행하도록 하였다.

공장의 일군들로 조직된 야간교과서생산계획을 130% 넘쳐 수행한 기적도모이 공장에서는 지금 더 많은 교과서생산과 함께 생산건물의 현대화공사를 힘있게 추진시키며 성과를 확대해나가고있다.

당 7차대회를 높은 정치적 열의와 빛나는 로력적성과로 맞이하기 위한 열의가 온 공장에 차넘치고있다.

이렇듯 초급당위원회사업은 당세포사업에 큰 힘을 넣을수목 단위사업에서 비약적인 성과가 이룩된다는것을 실증해주고 있다.

히 일 무

경애하는 원수님의 올해신년사업관철을 위한 투쟁에서 높은 실적을 내고있는 금화광산 초급당위원회 사업에서 찾게 되는 좋은 점이 있다.

대원의 기수, 전격의 나팔수 들인 일군들의 역할을 최대로 높여 돌파구를 열어제끼고있는 것이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었다.

《일군들은 승조한 애국관과 헌신의 각오를 가지고 조국의 부강번영과 인민의 행복을 위하여 끝까지 투쟁하여야 하며 스스로 무거운 짐을 맡아지고 대중의 앞장에서 뛰고 또 뛰어야 합니다.》

남강앞에 예상밖의 불리한 생산조건이 가로놓였던 때의 실례를 들어보자.

험한 일터에 주눅이 들들 모 일군은 결집이라고 하면 방대한 작업과제가 불과 며칠동안에 훌륭히 수행되는 큰 법이다.

초급일군들은 단숨에의 기상으로 비약하는 오늘날의 시대에 일군들의 투쟁기풍과 일본새가 과연 어떠한가 하는가를 심장같이 새기고 분발하여 임파했다.

그에 따라 광부들의 정신향이 최대로 발동함으로써 광산적으로 올해생산계획을 훨씬 넘쳐 수행하는데 갹이 크게 이바지하

는 대로의 기판차가 빛장을 바라보고있다. 신년사업관철을 위한 투쟁에서 또 마한가이다. 돌파구는 일군들의 몫이다!

그는 초급일군들이 제기된 정황과 조건에 맞게 자기 위치를 솔바로 차지하도록 깨우쳐주는 데만 머무르지 않았다. 초급당위원회일군들이 실천적으로 그들을 분발시키도록 하였다.

초급당비서 자신이 앞장에 섰다. 그는 당초급일군들과 함께 경애하는 원수님의 실천력을 발휘하였다. 화산직정사업은 정신이 번쩍 들게 진행되는 한편 가장 어려운 모퉁이에 출신 어깨를 들이밀면서 전격의 돌파구를 열어나갔다.

기적이 일어났다. 줄잡아도 열흘은 걸렸다고 하면 방대한 작업과제가 불과 며칠동안에 훌륭히 수행되었다.

실물증명의 감화력은 큰 법이다.

초급일군들은 단숨에의 기상으로 비약하는 오늘날의 시대에 일군들의 투쟁기풍과 일본새가 과연 어떠한가 하는가를 심장같이 새기고 분발하여 임파했다.

그에 따라 광부들의 정신향이 최대로 발동함으로써 광산적으로 올해생산계획을 훨씬 넘쳐 수행하는데 갹이 크게 이바지하

경애하는 원수님의 올해신년사업관철을 위한 투쟁에서 높은 실적을 내고있는 금화광산 초급당위원회 사업에서

경애하는 원수님의 올해신년사업관철을 위한 투쟁에서 높은 실적을 내고있는 금화광산 초급당위원회 사업에서 찾게 되는 좋은 점이 있다.

대원의 기수, 전격의 나팔수 들인 일군들의 역할을 최대로 높여 돌파구를 열어제끼고있는 것이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었다.

《일군들은 승조한 애국관과 헌신의 각오를 가지고 조국의 부강번영과 인민의 행복을 위하여 끝까지 투쟁하여야 하며 스스로 무거운 짐을 맡아지고 대중의 앞장에서 뛰고 또 뛰어야 합니다.》

남강앞에 예상밖의 불리한 생산조건이 가로놓였던 때의 실례를 들어보자.

험한 일터에 주눅이 들들 모 일군은 결집이라고 하면 방대한 작업과제가 불과 며칠동안에 훌륭히 수행되는 큰 법이다.

초급일군들은 단숨에의 기상으로 비약하는 오늘날의 시대에 일군들의 투쟁기풍과 일본새가 과연 어떠한가 하는가를 심장같이 새기고 분발하여 임파했다.

그에 따라 광부들의 정신향이 최대로 발동함으로써 광산적으로 올해생산계획을 훨씬 넘쳐 수행하는데 갹이 크게 이바지하

경애하는 원수님의 올해신년사업관철을 위한 투쟁에서 높은 실적을 내고있는 금화광산 초급당위원회 사업에서

경애하는 원수님의 올해신년사업관철을 위한 투쟁에서 높은 실적을 내고있는 금화광산 초급당위원회 사업에서 찾게 되는 좋은 점이 있다.

대원의 기수, 전격의 나팔수 들인 일군들의 역할을 최대로 높여 돌파구를 열어제끼고있는 것이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었다.

《일군들은 승조한 애국관과 헌신의 각오를 가지고 조국의 부강번영과 인민의 행복을 위하여 끝까지 투쟁하여야 하며 스스로 무거운 짐을 맡아지고 대중의 앞장에서 뛰고 또 뛰어야 합니다.》

남강앞에 예상밖의 불리한 생산조건이 가로놓였던 때의 실례를 들어보자.

험한 일터에 주눅이 들들 모 일군은 결집이라고 하면 방대한 작업과제가 불과 며칠동안에 훌륭히 수행되는 큰 법이다.

초급일군들은 단숨에의 기상으로 비약하는 오늘날의 시대에 일군들의 투쟁기풍과 일본새가 과연 어떠한가 하는가를 심장같이 새기고 분발하여 임파했다.

그에 따라 광부들의 정신향이 최대로 발동함으로써 광산적으로 올해생산계획을 훨씬 넘쳐 수행하는데 갹이 크게 이바지하

경애하는 원수님의 올해신년사업관철을 위한 투쟁에서 높은 실적을 내고있는 금화광산 초급당위원회 사업에서

경애하는 원수님의 올해신년사업관철을 위한 투쟁에서 높은 실적을 내고있는 금화광산 초급당위원회 사업에서 찾게 되는 좋은 점이 있다.

대원의 기수, 전격의 나팔수 들인 일군들의 역할을 최대로 높여 돌파구를 열어제끼고있는 것이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었다.

《일군들은 승조한 애국관과 헌신의 각오를 가지고 조국의 부강번영과 인민의 행복을 위하여 끝까지 투쟁하여야 하며 스스로 무거운 짐을 맡아지고 대중의 앞장에서 뛰고 또 뛰어야 합니다.》

남강앞에 예상밖의 불리한 생산조건이 가로놓였던 때의 실례를 들어보자.

험한 일터에 주눅이 들들 모 일군은 결집이라고 하면 방대한 작업과제가 불과 며칠동안에 훌륭히 수행되는 큰 법이다.

초급일군들은 단숨에의 기상으로 비약하는 오늘날의 시대에 일군들의 투쟁기풍과 일본새가 과연 어떠한가 하는가를 심장같이 새기고 분발하여 임파했다.

그에 따라 광부들의 정신향이 최대로 발동함으로써 광산적으로 올해생산계획을 훨씬 넘쳐 수행하는데 갹이 크게 이바지하

더 많은 버섯을 인민들에게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었다.

《맨손으로 떡볶이와 전자기판자를 만들어낸 건지, 우리의 힘과 기술로 우주를 정복한 그 정신을 즐기게 이어나가도록 하여야 합니다.》

조선로동당 7차대회를 우리 당력사에 특기할 혁명의 비전성기로 맞이하기 위해 버섯생산에서 더 큰 성과를 이룩해가고있는 청진버섯공장에 가면 이런 말을 들을수 있다.

—제힘을 믿을 때 못해낼 일이 없다.

공장이론들로부터 종업원들이 이르기까지 누구나 한목소리로 하는 이 말은 바로 완공이냐, 귀중한 성과와 제힘이 깃들었다.

공장에서 알뜰대신 바다를 전기분해하여 얻은 소독수를 리용하고있는 경험을 높고 보자.

무균보장을 생명으로 하는 버섯공장에서 알뜰과 류활은 매우 중요한 몫을 차지한다.

공장은 1차액각실과 2차액각실, 집종대기실, 원균종실 등 무균을 철저히 보장해야 할 방방만만 해도 10여개나 된다.

무균구역에 속하는 이 10여개의 방을 소독하는데만도 한때에 최소한 400여l의 알뜰이 소비되었다.

여기에 제배장들을 비롯하여 다른 방들을 소독하는데는 알뜰과 류활까지 합치면 투자액이 간단치 않았다.

물론 도에서 버섯공장의 생산정성화를 위해 깊은 관심을 돌리며 적지 않은 도움을 주고 있었다.

제힘을 믿으면 못해낼 일이 없다

청진버섯공장 일군들의 사업에서

하지만 그것만 바라고 앉아 있을수 없었다.

지금이 어떤 때인가. 우리의 혁명의 영웅투쟁정신을 빛내이며 최후승리를 앞당기기 위한 지력경쟁대결군이 힘있게 벌리고있는 이때 우만저 다보며 앉아있다면 어떻게 우리 시대 일군이라고 말할수 있겠는가.

자기 부른, 자기 단위의 일은 자기가 전적으로 책임진다는 확고한 믿음을 지니고 자력경쟁의 원칙에서 기업전략, 경영전략을 바로세우며 작전과 지휘를 박력있게 해나가야 한다.

이렇게 자각하고 분발해나선 김동호동무를 비롯한 공장 일군들은 원가를 최대로 줄이면서 소독수문제를 해결할수 있는 방도를 찾아 사색과 탐구를 거듭하였다.

마침내 그들은 바다를 끼고 있는 도의 특성에 맞게 바다물을 리용하여 소독수를 해결할 방안을 찾게 되었다.

즉시 실천에 옮기기 위한 전 투가 진행되었다.

이때 중시한 문제들이었다.

우선 과학자, 기술자들과의 련계를 강화하는것이였다.

오늘의 자력경쟁은 과학기술이라는 기관차를 앞세우고 대박약, 대혁신을 이룩해나가는 민족자존의 정신, 최첨단과학의 정신이다. 이것을 명심한 공장일군들은 련관부문의 과학자, 기술자들을 찾아 많이 찾도록 노력하였다.

함경북도과학기술총보소, 청진시과학기술위원회, 무명

제힘을 믿으면 못해낼 일이 없다

청진버섯공장 일군들의 사업에서

하지만 그것만 바라고 앉아 있을수 없었다.

지금이 어떤 때인가. 우리의 혁명의 영웅투쟁정신을 빛내이며 최후승리를 앞당기기 위한 지력경쟁대결군이 힘있게 벌리고있는 이때 우만저 다보며 앉아있다면 어떻게 우리 시대 일군이라고 말할수 있겠는가.

자기 부른, 자기 단위의 일은 자기가 전적으로 책임진다는 확고한 믿음을 지니고 자력경쟁의 원칙에서 기업전략, 경영전략을 바로세우며 작전과 지휘를 박력있게 해나가야 한다.

이렇게 자각하고 분발해나선 김동호동무를 비롯한 공장 일군들은 원가를 최대로 줄이면서 소독수문제를 해결할수 있는 방도를 찾아 사색과 탐구를 거듭하였다.

마침내 그들은 바다를 끼고 있는 도의 특성에 맞게 바다물을 리용하여 소독수를 해결할 방안을 찾게 되었다.

즉시 실천에 옮기기 위한 전 투가 진행되었다.

이때 중시한 문제들이었다.

우선 과학자, 기술자들과의 련계를 강화하는것이였다.

오늘의 자력경쟁은 과학기술이라는 기관차를 앞세우고 대박약, 대혁신을 이룩해나가는 민족자존의 정신, 최첨단과학의 정신이다. 이것을 명심한 공장일군들은 련관부문의 과학자, 기술자들을 찾아 많이 찾도록 노력하였다.

함경북도과학기술총보소, 청진시과학기술위원회, 무명

제힘을 믿으면 못해낼 일이 없다

청진버섯공장 일군들의 사업에서

하지만 그것만 바라고 앉아 있을수 없었다.

지금이 어떤 때인가. 우리의 혁명의 영웅투쟁정신을 빛내이며 최후승리를 앞당기기 위한 지력경쟁대결군이 힘있게 벌리고있는 이때 우만저 다보며 앉아있다면 어떻게 우리 시대 일군이라고 말할수 있겠는가.

자기 부른, 자기 단위의 일은 자기가 전적으로 책임진다는 확고한 믿음을 지니고 자력경쟁의 원칙에서 기업전략, 경영전략을 바로세우며 작전과 지휘를 박력있게 해나가야 한다.

이렇게 자각하고 분발해나선 김동호동무를 비롯한 공장 일군들은 원가를 최대로 줄이면서 소독수문제를 해결할수 있는 방도를 찾아 사색과 탐구를 거듭하였다.

마침내 그들은 바다를 끼고 있는 도의 특성에 맞게 바다물을 리용하여 소독수를 해결할 방안을 찾게 되었다.

즉시 실천에 옮기기 위한 전 투가 진행되었다.

이때 중시한 문제들이었다.

우선 과학자, 기술자들과의 련계를 강화하는것이였다.

오늘의 자력경쟁은 과학기술이라는 기관차를 앞세우고 대박약, 대혁신을 이룩해나가는 민족자존의 정신, 최첨단과학의 정신이다. 이것을 명심한 공장일군들은 련관부문의 과학자, 기술자들을 찾아 많이 찾도록 노력하였다.

함경북도과학기술총보소, 청진시과학기술위원회, 무명

제힘을 믿으면 못해낼 일이 없다

청진버섯공장 일군들의 사업에서

하지만 그것만 바라고 앉아 있을수 없었다.

지금이 어떤 때인가. 우리의 혁명의 영웅투쟁정신을 빛내이며 최후승리를 앞당기기 위한 지력경쟁대결군이 힘있게 벌리고있는 이때 우만저 다보며 앉아있다면 어떻게 우리 시대 일군이라고 말할수 있겠는가.

자기 부른, 자기 단위의 일은 자기가 전적으로 책임진다는 확고한 믿음을 지니고 자력경쟁의 원칙에서 기업전략, 경영전략을 바로세우며 작전과 지휘를 박력있게 해나가야 한다.

이렇게 자각하고 분발해나선 김동호동무를 비롯한 공장 일군들은 원가를 최대로 줄이면서 소독수문제를 해결할수 있는 방도를 찾아 사색과 탐구를 거듭하였다.

마침내 그들은 바다를 끼고 있는 도의 특성에 맞게 바다물을 리용하여 소독수를 해결할 방안을 찾게 되었다.

즉시 실천에 옮기기 위한 전 투가 진행되었다.

이때 중시한 문제들이었다.

우선 과학자, 기술자들과의 련계를 강화하는것이였다.

오늘의 자력경쟁은 과학기술이라는 기관차를 앞세우고 대박약, 대혁신을 이룩해나가는 민족자존의 정신, 최첨단과학의 정신이다. 이것을 명심한 공장일군들은 련관부문의 과학자, 기술자들을 찾아 많이 찾도록 노력하였다.

함경북도과학기술총보소, 청진시과학기술위원회, 무명

제힘을 믿으면 못해낼 일이 없다

청진버섯공장 일군들의 사업에서

하지만 그것만 바라고 앉아 있을수 없었다.

지금이 어떤 때인가. 우리의 혁명의 영웅투쟁정신을 빛내이며 최후승리를 앞당기기 위한 지력경쟁대결군이 힘있게 벌리고있는 이때 우만저 다보며 앉아있다면 어떻게 우리 시대 일군이라고 말할수 있겠는가.

자기 부른, 자기 단위의 일은 자기가 전적으로 책임진다는 확고한 믿음을 지니고 자력경쟁의 원칙에서 기업전략, 경영전략을 바로세우며 작전과 지휘를 박력있게 해나가야 한다.

이렇게 자각하고 분발해나선 김동호동무를 비롯한 공장 일군들은 원가를 최대로 줄이면서 소독수문제를 해결할수 있는 방도를 찾아 사색과 탐구를 거듭하였다.

마침내 그들은 바다를 끼고 있는 도의 특성에 맞게 바다물을 리용하여 소독수를 해결할 방안을 찾게 되었다.

즉시 실천에 옮기기 위한 전 투가 진행되었다.

이때 중시한 문제들이었다.

우선 과학자, 기술자들과의 련계를 강화하는것이였다.

오늘의 자력경쟁은 과학기술이라는 기관차를 앞세우고 대박약, 대혁신을 이룩해나가는 민족자존의 정신, 최첨단과학의 정신이다. 이것을 명심한 공장일군들은 련관부문의 과학자, 기술자들을 찾아 많이 찾도록 노력하였다.

함경북도과학기술총보소, 청진시과학기술위원회, 무명

제힘을 믿으면 못해낼 일이 없다

청진버섯공장 일군들의 사업에서

하지만 그것만 바라고 앉아 있을수 없었다.

지금이 어떤 때인가. 우리의 혁명의 영웅투쟁정신을 빛내이며 최후승리를 앞당기기 위한 지력경쟁대결군이 힘있게 벌리고있는 이때 우만저 다보며 앉아있다면 어떻게 우리 시대 일군이라고 말할수 있겠는가.

자기 부른, 자기 단위의 일은 자기가 전적으로 책임진다는 확고한 믿음을 지니고 자력경쟁의 원칙에서 기업전략, 경영전략을 바로세우며 작전과 지휘를 박력있게 해나가야 한다.

이렇게 자각하고 분발해나선 김동호동무를 비롯한 공장 일군들은 원가를 최대로 줄이면서 소독수문제를 해결할수 있는 방도를 찾아 사색과 탐구를 거듭하였다.

마침내 그들은 바다를 끼고 있는 도의 특성에 맞게 바다물을 리용하여 소독수를 해결할 방안을 찾게 되었다.

즉시 실천에 옮기기 위한 전 투가 진행되었다.

이때 중시한 문제들이었다.

우선 과학자, 기술자들과의 련계를 강화하는것이였다.

오늘의 자력경쟁은 과학기술이라는 기관차를 앞세우고 대박약, 대혁신을 이룩해나가는 민족자존의 정신, 최첨단과학의 정신이다. 이것을 명심한 공장일군들은 련관부문의 과학자, 기술자들을 찾아 많이 찾도록 노력하였다.

함경북도과학기술총보소, 청진시과학기술위원회, 무명

제힘을 믿으면 못해낼 일이 없다

청진버섯공장 일군들의 사업에서

하지만 그것만 바라고 앉아 있을수 없었다.

지금이 어떤 때인가. 우리의 혁명의 영웅투쟁정신을 빛내이며 최후승리를 앞당기기 위한 지력경쟁대결군이 힘있게 벌리고있는 이때 우만저 다보며 앉아있다면 어떻게 우리 시대 일군이라고 말할수 있겠는가.

자기 부른, 자기 단위의 일은 자기가 전적으로 책임진다는 확고한 믿음을 지니고 자력경쟁의 원칙에서 기업전략, 경영전략을 바로세우며 작전과 지휘를 박력있게 해나가야 한다.

이렇게 자각하고 분발해나선 김동호동무를 비롯한 공장 일군들은 원가를 최대로 줄이면서 소독수문제를 해결할수 있는 방도를 찾아 사색과 탐구를 거듭하였다.

마침내 그들은 바다를 끼고 있는 도의 특성에 맞게 바다물을 리용하여 소독수를 해결할 방안을 찾게 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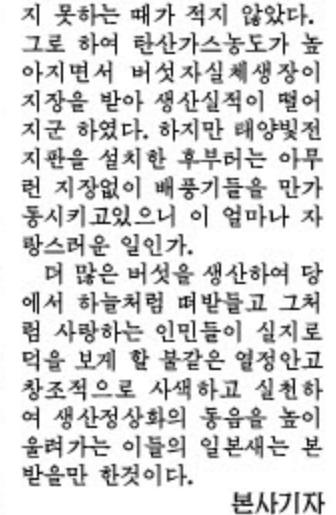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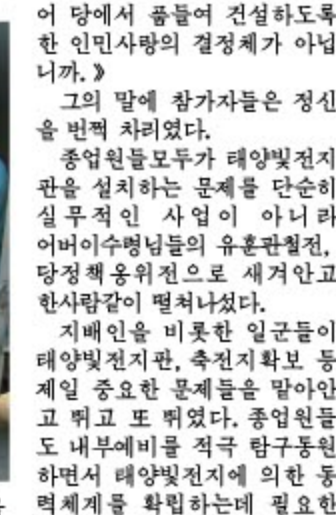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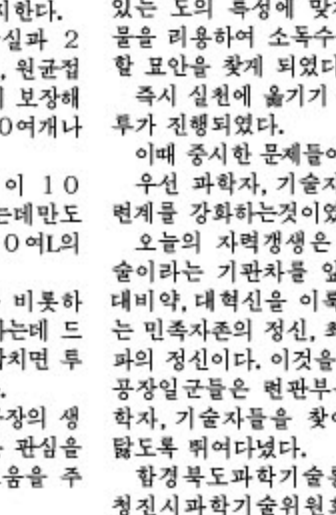
즉시 실천에 옮기기 위한 전 투가 진행되었다.

이때 중시한 문제들이었다.

우선 과학자, 기술자들과의 련계를 강화하는것이였다.

오늘의 자력경쟁은 과학기술이라는 기관차를 앞세우고 대박약, 대혁신을 이룩해나가는 민족자존의 정신, 최첨단과학의 정신이다. 이것을 명심한 공장일군들은 련관부문의 과학자, 기술자들을 찾아 많이 찾도록 노력하였다.

함경북도과학기술총보소, 청진시과학기술위원회, 무명



많은 버섯을 생산하여 인민들에게 보내주고 있다. - 태원버섯공장에서 - 본사기자 김성일 찍음

명작창작성과로 당 제7차대회를 맞이할 열정과

천만군민을 오늘도 백두의 행군길에로 떠밀어주는 시대의 명작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오늘 우리앞에는 부닥치는 난관과 시련을 꺾고 헤치고 주체혁명위업의 최후승리를 앞당겨 나가야 할 무거운 고성과 성스러운 임무가 나사고있다.》

올해 당장전 70돐을 성대히 경축한 천만군민은 조선로동당 제7차대회 소집날에 대한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결정을 받아안고 용기백배, 신심십배가 높아지고있다.

우리 군대와 인민의 격양된 사상정신세계는 지금 초소와 일터마다에서 울려퍼지고있는 노래 《장군님 따라 싸우는 길에》, 《전사의 념원》, 《장군님은 조선의 운명》에 그대로 비껴 흐르고있다.

이 노래들은 조선로동당 제6차대회를 전후로 하여 창조된 예술영화들의 주제가들이다. 노래 《장군님 따라 싸우는 길에》는 주제가 67(1978)년에 창조된 예술영화 《첫 무장대에서 온 이야기》의 주제가(1980)년에 창조된 예술영화 《백두산》의 주제가이며 노래 《장군님은 조선의 운명》은 주제가 71(1982)년에 창조된 예술영화 《원위전사》의 주제가이다.

노래들은 다같이 항일투쟁투쟁시기를 반영하고있다. 민족의 태양인 김일성장군님의 명도비애 항일혁명선열들이 일제를 쳐물리치고 조국해방을 이룩한 때로부터 70년세월이 흘렀다.

항일혁명투사들이 피로써 쓴 내 나라의 백두산대에는 위용떨치고 조국강산에는 사회주의문명의

새 력사를 펼쳐는 기념비적장조물들이 회한하게 일떠서고있다. 그러나 강산이 변모되어갈수록 우리의 가슴속에 간직된 백두의 혁명정신은 더욱 불타오르고있다.

항일혁명선열들의 투쟁모습을 형상한 노래들과 더불어 백두의 념원을 명멸처럼 간직하고 주체혁명위업의 최후승리를 앞당겨오려는 천만군민의 지향은 더욱 강렬해지고있다.

이 노래들은 오늘날 우리 군대와 인민에게 있어서 항일혁명선열들의 숭고한 정신세계에 자신을 비추어 보게 하는 거울이며 백두의 혁명정신, 백두의 칼바람정신으로 살며 투쟁하게 하는 혁명의 교과서와도 같다.

예술영화 《첫 무장대에서 온 이야기》에서 울리는 노래 《장군님 따라 싸우는 길에》는 위대한 수령님께서 제시하신 반일통일전선의 로선을 관철하기 위하여 모든것을 다 바쳐 투쟁하는 항일혁명투사의 정신세계를 깊이있게 밝힌 명곡이다.

영화에서 주인공 광천은 무엇을 간직하였기에 일제의 모략에 빠진 독립군과 구국군을 반일통일전선에 묶어세우기 위한 위험천만한 길을 주저없이 행하였던가. 그것은 바로 사명관동지께서 제시하신 로선과 방침은 곧 정의이고 승리의 기치라는 뜻을 지니고 있는 배시였으며 그를 관철하는 길에서 물러선다면 사명관동지의 절대적으 살과 보장을 할수 없다는 혁명전사의 깨끗한 량심이고 자각이었다. 하여 그는 뜻하지 않게 치명상을 당한채 말발굽에 실렸을 때 병원이 아니라 사명관동지께서 계시는 곳으로 가야 한다고 결연히 말하는 것이다.

이 노래가 위대한 장군님께서서는 예술영화 《첫 무장대에서 온 이야기》에 대하여 감회깊이 추억하시면서 자신께서는 수령님께서 주신 명명을 관철하기 위하여 싸우다 적탄에 치명상을 입고 쓰러진 주인공이 수령님께서 계시는 라자구로 찾아가는 장면에서 나오는 노래 《장군님 따라 싸우는 길에》를 좋아한다는 것으로 뜻깊은 교시를 주시었다.

장군님 따라 싸우는 길에 자기의 모든것을 다 바친 항일혁명선열들의 불굴의 혁명정신은 우리 혁명정신과 인민이 이어받아야 할 귀중한 정신적 유산이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서는 최근에도 위대한 장군님의 유훈을 관철하기 위하여는 한수 있는가를 따지기 전에 무조건 해야 한다는 비장한 각오와 책임감, 장군님께서 하라고 하신것은 철의 진리이며 모든 승리의 담보라는 것을 심장에 조아리고 투쟁하여야 한다고 간곡히 말씀하시었다.

경애하는 원수님의 노스신 뜻을 새긴 천만군민에게 있어서 노래 《장군님 따라 싸우는 길에》는 위대한 장군님의 유훈관철전에 하는 자욱자욱을 비추어보게 하는 거울로 되고있다.

노래 《전사의 념원》은 백두의 혁명정신, 백두의 칼바람정신으로 살며 투쟁하는 우리 혁명선열들이 항일투쟁시대에 걸맞은 투쟁의 지향은 무엇인가를 뜨겁게 새겨주는 뜻깊은 명곡이다.

이 노래는 예술영화 《백두산》에서 지하공작인무를 맡은 광대중대장 철호가 눈보라치는 풍야를 헤쳐나가는 장면에서 울린다.

노래는 사신의 고비를 헤쳐가는 항일의 혈전만리길에서 투사들이 간직한 념원을 진실하고도 열렬한 감성속에 일반화하고있다. 총칼의 대원들과 함께 버려나가는 투쟁이 가지지 않는 혁명의 심오하게 밝히고있다.

《장군님은 조국의 운명 혁명의 운명이다 억척만반을 우리 살아가는 장군님을 보우하리라》, 여기에 항일의 혈전만리길에서 혁명선열들이 창조한 수령결사옹위정신이 응축되어있다. 억척만반을 우리 살아가는 장군님을 보우하여야 한다는 명구절에는 수령을 보우하기 전에는 죽을 권리로도 없다는 항일혁명선열들의 투철한 수령결사옹위정신의 근본이 깔려있다.

백두에서 개척된 선군혁명위업은 수령결사옹위정신으로 혁명의 존엄한 면모를 승리와 영광으로 빛내어 왔으며 항일혁명선열들이 발휘한 애정인 피를처럼 천만군민에게 이어져왔다.

조선로동당 제7차대회에로 향한 우리 행군길에 울려 퍼지는 이 노래들은 수령의 사상과 뜻을 어떻게 관철하여 혁명정신과 의지를 무엇으로 굳게 다지며 수령결사옹위정신에 어떻게 싸워야 하는가를 깊이 새겨주는 귀중한 혁명의 교과서로 되고있다.

백두의 혁명정신, 백두의 칼바람정신이 시대정신으로 끓어오르는 조국강산에 항일혁명선열들의 정신세계를 반영한 우리 수령결사옹위정신으로 울려 퍼지는 천만군민을 새로운 위훈과 혁신으로 고무추동하게 될것이다.

이 노래는 항일의 너성영웅 김정숙동지께서 혁명의 사명부에 조성된 위협을 제거하기 위해 유격대원들과 함께 버려나가는 투쟁이 가지지 않는 혁명의 심오하게 밝히고있다.

《장군님은 조국의 운명 혁명의 운명이다 억척만반을 우리 살아가는 장군님을 보우하리라》, 여기에 항일의 혈전만리길에서 혁명선열들이 창조한 수령결사옹위정신이 응축되어있다. 억척만반을 우리 살아가는 장군님을 보우하여야 한다는 명구절에는 수령을 보우하기 전에는 죽을 권리로도 없다는 항일혁명선열들의 투철한 수령결사옹위정신의 근본이 깔려있다.

백두에서 개척된 선군혁명위업은 수령결사옹위정신으로 혁명의 존엄한 면모를 승리와 영광으로 빛내어 왔으며 항일혁명선열들이 발휘한 애정인 피를처럼 천만군민에게 이어져왔다.

조선로동당 제7차대회에로 향한 우리 행군길에 울려 퍼지는 이 노래들은 수령의 사상과 뜻을 어떻게 관철하여 혁명정신과 의지를 무엇으로 굳게 다지며 수령결사옹위정신에 어떻게 싸워야 하는가를 깊이 새겨주는 귀중한 혁명의 교과서로 되고있다.

백두의 혁명정신, 백두의 칼바람정신이 시대정신으로 끓어오르는 조국강산에 항일혁명선열들의 정신세계를 반영한 우리 수령결사옹위정신으로 울려 퍼지는 천만군민을 새로운 위훈과 혁신으로 고무추동하게 될것이다.

운천군 운천초급중학교에서

수업시간에 학생들이 제기하는 질문에 대한 정확한 대답과 설명은 곧 배운 내용에 대한 학생들의 인식과 소화에서 중요한 몫을 차지한다.

이런 의미에서 볼 때 운천군 운천초급중학교 교원들의 수업이 좋은 경험을 시사해 주고있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교육내용과 함께 교육방법을 끊임없이 개선하여야 합니다.》

이 학교의 일군들과 교원들의 교육수업을 취재하는 과정에 우리는 참관을 통한 교육이 많은 비중을 차지한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전반적 12년제의 무교육 과정안을 받아안은 강육신, 리군백동무를 비롯한 일군들과 교원들은 그 집행을 위하여 새 교과서와 교수안을 놓고 지치지 않는 노력을 기울여왔다.

여기서 중요하게 의도된 문제의 하나가 바로 모든 교원들이 자기 담당할 과목에 자기 장관을 통한 교육을 방법론있게 진행하도록 하는 것이었다.

일부 교원들속에서 제기된 조건보장문제와 관련하여 토론을 거듭하던 끝에 자기 고장을 위주로 참관자 정제 지게 되었으며 참관사업이 실속있게 진행되도록 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이 세워졌다.

참관을 기본으로 하여 진행된 교원들의 수업은 학생들의 실력향상에 좋은 결과를 가져오게 하였다.

실제로 윤남교원이 진행한 2학년 4반 학생들의 글짓기수업은 굳이 있는 산 무렵에서 활짝 피어있는 산 무렵밭길에서 진행되었는데 눈앞에 아득하게 펼쳐진 산 무렵은 그 고향에 있는 산 무렵과 다를바 없었다는 것을 보여 주었다.

들과 자연리치적위치, 력사적 사실들을 안찰하여 알기 쉽게 해설해주는 수업은 학생들에게 깊은 인상을 남겼다.

백년 듣는것보다 한번 보는 것이 낫다고 자기가 보고 느낀 사실이 그대로 반영된 학생들의 작품은 진실한 면모도 소박하였다.

작문들에 대한 발표모임도 경쟁심과 욕망을 북돋아주도록 하기 위해 학급학생들을 여러 조로 나누어 조별동수관 형을 진행함으로써 교육과정의 질을 높이고는 온을 내도록 하였다.

김정식교원의 력사수업도 마찬가지였다. 력사수업에 대한 참관을 진행하면서 학생들속에서 제기된 질문들 가운데는 충실문과 나란히 서있는 하인방에 대한 것도 있었다.

교원은 해당 유적과 관련된 내용을 알기 쉽게 해설해주어 당시 사회제도의 반인민적정격을 학생들 스스로가 깨닫도록 하였다.

학교에서는 끊임없이 제기되는 학생들의 질문에 생동한 직관적표상을 주기 위하여 교원들의 실력향상과 함께 현대적인 교수수업을 원만히 갖추기 위한 사업에 적극 내밀어 교수요강 사업에서 더 높은 성과를 이룩할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였다.

결과 학생들의 원리적인 식견력이 훨씬 높아지고 교원들의 사명감과 교사의 비사명감이 반영되었다.

운천초급중학교의 경험은 참관을 통한 교육을 다 양하고도 실속있게 진행할수 있는 학생들의 탐구력과 실용성이 높아져 질문이 많 아지게 되며 여기에 교원의 자 정을 떠래세울 때 교육의 질을 훨씬 높일수 있다는 것을 보여 주었다.

진취적인 창조기공과 형상실천

국립민족예술단의 무용 창조경험

국립민족예술단의 창작가, 예술인들이 당 제7차대회를 빛나는 로적성과로 맞이하기 위해 산악악기 연주회와 천만군민의 심장에 불을 달기 위한 창작장조편곡을 창작해 내고있다. 높이 세운 창작물들을 달성하기 위한 전투가 벌어지고있는 가운데 무용창조팀장에서도 진취적인 창조기공이 발휘되고있다.

올해에 창작된 무용 《포항의 용사들》도 이번 진취적인 창조기공이 낳은 좋은 작품들중의 하나이다.

이 작품은 지난 조국해방전쟁시기에 발휘된 우리 인민군 전사들의 조국수호정신을 반영한 의미있는 무용작품이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문학예술창작에서 도방과 도식, 반복과 유사성을 철저히 없애고 끊임없이 새것을 탐구하고 대담하게 혁신하여야 합니다.》

인물상장 김현동무가 처음 이 작품을 내놓을 때 의견이 분분했다. 1950년대 창작된 용사들의 조국수호정신을 부각시키려고 했지만 작품에 등장하는 인민군전사들이 포항의 용사들인지 아니면 1211교지의 방위자이거나

351교지의 용사들인지 분간할수 없었던것이다.

이것 창작지도 일군들과 조선무용가협회 중앙위원회 서기장 조영화동무는 주관적 유감에 사로잡힌 인부실장에게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제9차 전국예술인대회 참가자들에게 보내주신 서한에서 밝혀주신대로 전학과 참관, 자료연구를 많이 하여 형상실천에서 대담하게 혁신할데 대한 의견을 주었다.

김현동무는 그들의 의견을 허심하게 받아들여 조국해방전쟁시기에 발휘된 우리 인민군 전사들의 조국수호정신을 반영한 의미있는 무용작품을 창작하라는 원수님의 뜻을 받들고, 포항의 용사들을 형상한 영화도 참고적으로 보았으며 당보를 비롯한 여러 출판물들에 실린 용사들의 투쟁내용도 탐독하면서 사색을 심화시켜나갔다. 그 과정에 종전의 인부실장을 뒤집고 사람들의 작품을 세계에 끌어들이는 새로운 안을 세울수 있었고 당시의 전투상황이 진실하게 안겨오도록 하는 무용의 주가라고 착상할수 있었다.

뿐만아니라 작품의 첫시작은 포항의 용사들의 군상으로 형상하였지만 마가에는 공화국기발을 여백에 꾸며 인민군전사들의 모습을 《승리》상의 격동적인 표상으로 정서적감동이 느껴지게

창작하여 도식을 짚수 있었다. 또한 무용음악을 잘 살려내기 위하여 여러가지 악기와 전자악기 사색하였고 작곡가와 긴밀한 토의를 거듭 진행하였다.

마침내 작곡가 기성의 음악작품들을 작품에 실렸던것에 맞게 새롭게 편곡한 무용음악을 형상실천에 받아들였다. 그렇게 하니 모방과 도식, 반복과 유사성을 없애고 전쟁물주제무용작품의 성격이 두드러지게 하면서도 작품의 사상에술적특색을 보다 높일수 있었다.

인물가의 사색과 형상실천 과정에 갖은 경험은 들끓는 현실에 뛰어들어 진취적인 창조기공으로 새것을 창조하기 위한 의식적이며 적극적인 탐구를 심화시키면서 서로의 지혜를 합친 채 무용창조팀사업에서 전진이 이룩된다는 것이다.

무용 《포항의 용사들》의 창조경험은 위대한 수령님께서 당 제7차대회를 전제없는 로적성과로 맞이하기 위해 총정기해나신 천만군민의 혁명적의의를 더욱 고조시키기 위한 창작장조편곡을 벌리고있는 이곳 일군들과 창작가, 예술인들에게 신념을 돈독히 조야매고 분발하게 하고있다.

본사기자 백성근

현실 체험과 명작

조선작가동맹 강원도위원회 작가들의 현실체험담을 들고

위대한 명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작가, 예술인들은 현실 체험이 가지는 의의를 똑똑히 알고 현실체험을 깊이 있게 함으로써 명작창작의 밑거름을 충분히 마련하여야 합니다.》

당 제7차대회를 전제없는 로적성과로 맞이하기 위해 총정기해나신 천만군민의 혁명적의의를 더욱 고조시키기 위한 창작장조편곡을 벌리고있는 이곳 일군들과 창작가, 예술인들에게 신념을 돈독히 조야매고 분발하게 하고있다.

본사기자 백성근

작가 조인영동무 역시 철렁이 새파라다를 더 아름답게 펼치기 위해 애쓰는 618군 실용적대 평양시에서 강릉군 대대에서 사령관생활의 혁명정신으로 위훈을 창조하고있는 돌격대의 생활을 오매동단 길이 있게 파보는 과정에 돌격대에도 독특한 기법처럼, 영영이 있었다.

그러나 조인영작가는 아직 자신이 작품에 반영할 보석같은 생활사부, 개성적인 인간성적의 발전이 부족하다는 것을 뼈아프게 느끼면서 현실체험을 다시 해야 하겠다고 결심하였다.

작가 함영주동무는 이와 달리 비록 짧은 기간의 현실 체험을 하였지만 수산부문의 일군들과 근로자들의 투쟁내용을 시에 담을수 있는 좋은 새부와 사상을 잡았다고 한다. 이로부터 일단 물에 내리면 땅뭍마를 하는 현상에 대해 이야기 한것이 작가에게 큰 충격을 주었던것이다.

함영주작가는 비사히 양양된 정서적체험을 안고 이것을 시적기어로 하여 어로공들의 생활을 반영한 가사창작에 달라붙었다.

세명의 작가들의 현실체험

성공과로 맞이하기 위하여

당 제7차대회를 맞이하기 위하여

당 제7차대회를 맞이하기 위하여

당 제7차대회를 맞이하기 위하여

위대한 김정일동지께와

금수산태양궁전을 찾아

외국 손님들 경의 표시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와 위대한 명도자 김정일동지께 금수산태양궁전을 찾아 12일 로씨야연방무력 총참모부대표단, 몽골국방성대표단을 비롯한 외국 손님들이 경의를 표시하였다.

손님들은 인류의 반제자주위업과 세계의 평화수호에 불멸의 공헌을 하신 세계정치의 원로, 혁명의 대성인으로 만민의 심장속에 영생하시는 위대한 김일성동지와 김정일동지에 대한 다함없는 경의의 마음과

그들은 방문록에 글을 남겼다.

로씨야연방무력 총참모부 대표단 단장인 니콜라이 보그다누스키 제1부총참모장은 조선인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창건자이며 영리한 주석이신 김일성동지께와 그의 위업을 숭배하며 존경하는 마음으로 위대한 수령님들께 생애의 마지막까지 가지 현저지도와 의 국과 전통자, 배, 열차보존실들을 깊은 감동속에 돌아보았다.

그들은 방문록에 글을 남겼다.

로씨야연방무력 총참모부 대표단 단장인 니콜라이 보그다누스키 제1부총참모장은 조선인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창건자이며 영리한 주석이신 김일성동지께와 그의 위업을 숭배하며 존경하는 마음으로 위대한 수령님들께 생애의 마지막까지 가지 현저지도와 의 국과 전통자, 배, 열차보존실들을 깊은 감동속에 돌아보았다.

제2차 전국녀맹초급일군열성자대회 참가자들

전국녀맹예술소조 종합공연 관람

제2차 전국녀맹초급일군열성자대회 참가자들

전국녀맹예술소조 종합공연 관람

조선과 로씨야 두 나라 정부사이의

협정 조인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정부와 로씨야연방 정부사이의 협정 조인

협정 조인

우리 나라 팀 결승경기에 진출

2015년 아시아 축구련맹

16살미만 녀자선수권대회에서

우리 나라 녀자축구가 중국 무한에서 진행된 2015년 아시아 축구련맹 16살미만 녀자선수권대회 결승경기에 진출하였다.

지난 4일부터 시작된 선수권 대회에서는 8개 나라와 지역의 팀들이 2개 조로 나누어 조별별 경기를 하였으며 예에서 1위와 2위를 한 팀들이 승자전의 방비으로 준결승, 결승경기를 진행하게 되었다.

우리 팀은 조별별명경 2조에

속하여 우즈베키스탄, 중국 대 북, 일본팀과의 경기를 성과적으로 치르고 준결승에 나섰다.

12일 우리 나라 팀과 중국팀과의 준결승경기가 있었다.

어머니조에서 훌륭한 경기 성과로 보합할 일념안고 경기에 출전한 우리의 나이런 녀자 축구선수들은 팀의 전술적의 도를 잘 살리면서 높은 집단주의 정신과 완강한 투지를 발휘하였다.

경기가 시작되어 2분경 우리

팀에서 먼저 득점하였다.

우리 선수들은 기세를 올리며 제치기는 2, 3인결합과 단면전투에 의한 볼의적인 역습 등으로 경기를 잘 운영해나갔다.

경기시간 87분경 또다시 우리 팀에서 득점을 성공시켰다.

결국 우리 나라 팀은 2:1로 중국팀을 이기고 결승경기에 진출하였다.

우리 팀은 15일 일본팀과 결승경기를 하게 된다.

로씨야연방무력 총참모부대표단

만경대 방문, 여러곳 참관

로씨야연방무력 총참모부대표단

만경대 방문, 여러곳 참관

30여년을 농촌기계화초병으로

작업반 인병영동무는 30여년

30여년을 농촌기계화초병으로

작업반 인병영동무는 30여년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정부대표단 루안다 도착

안골리동무 40돐 경축공식에 참가하며 안골리동무를 공식 방문하기 위해 리수용외무상을 단장으로 하는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 정부대표단이 9일 수도 루안다에 도착하였다.

비행장에서 마누엘 도밍구스 아우구스투 국무부서장을 비롯한

인민공화국 관계성 관계자들과 김일영이 나와 주재 우리 나라 특명전권대사, 대사관직원들이 맞이하였다.

니콜라이 보그다누스키

니콜라이 보그다누스키

대표단이 만경대를 방문하였다

대표단이 만경대를 방문하였다

대표단은 또한 주재사상

대표단은 또한 주재사상

대표단은 또한 주재사상

대표단은 또한 주재사상

